

HEADLINE NEWS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적극 전개 (싱가포르)

도시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에서도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 교육, 연령, 언어, 장애 여부 등이 정보격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Step into IT」, 「e-Ambassadors」 등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Step into IT」는 IT 코치 프로그램으로, IT교육용 기본 장비를 갖춘 버스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IT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e-Ambassadors」 프로그램은 연령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IT 숙련자가 자신과 동일한 연령집단에 IT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싱가포르(Singapore-One)’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정보격차를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정보사회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정보사회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s-one.net.sg)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현행 「市건축조례」 대신 「국제건축규약」 적용 검토 (뉴욕)

도시환경

- ② 都營주택 해체 및 건설시 건축폐기물의 리사이클 강력 추진 (동경)
- ③ 都의회건물 옥상에 정원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동경)
- ④ 가을 낙엽 청소하기 (뉴욕)

도시교통

- ⑤ 도로이용자 편의 위해 교통사업 정보 제공 (샌디에고)
- ⑥ 대중교통 이용촉진 위해 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다목적 활용방안 모색 (뉴욕)
- ⑦ 일반버스보다 6m 길고 첨단기능 갖춘 물절버스 도입 (캘리포니아주: San Mateo County)
- ⑧ 도심부의 주차공간 가이드북 발간 (캐나다: 런던市)

행.재정

- ⑨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과의 토론회 '매주 개최 (캔자스시티)
- ⑩ 지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역서비스 성과지표 제공 (뉴욕)
- ⑪ 선진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휴스턴)
- ⑫ 도시의 랜드마크를 전구로 장식한 야간 「빛의 축제」 개최 (로스앤젤레스)

① 현행 「市건축조례」 대신 「국제건축규약」 적용 검토 (뉴욕)

미국 뉴욕市는 현행 「市건축조례(city building code)」가 너무 복잡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이 늦어져 건물을 신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최근 시장 직속으로 건축조례위원회를 구성해 「국제건축규약(IBC;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을 현행 조례 대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도록 했다.

市の 이러한 조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건축조례를 자주 수정 및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가 너무 복잡해 한정된 인력으로 시의적절하게 이를 갱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차라리 현행 건축규약 중 가장 정교하다고 알려진 「국제건축규약」의 활용을 모색해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국제건축규약」은 국제건축규약위원회에 속해 있는 350여명의 건축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고 있다.

(www.nyc.gov/html/om/html/2002b/pr254-02.html)

② 都營주택 해체 및 건설시 건축폐기물의 리사이클 강력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 주택국은 도영(都營)주택의 해체에서 건설까지를 일괄공사로 시행 함으로써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이나 리사이클용품의 사용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都는 금년 3월 카쓰시카區 신주쿠 로쿠초노메 단지에서 「리사이클 모델 프로젝트」에 착수한 결과, 해체공사 종료 시점에서의 리사이클률이 99.8%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都주택국은 이번 모델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발주하는 해체공사에서부터 분별해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都營주택이나 민간 주택의 해체공사를 안내할 수 있는 「리사이클 매뉴얼」도 연내 작성할 예정이다.

(www.toseishimpo.co.jp/news/news.html)

③ 都의회건물 옥상에 정원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동경)

일본 東京都는 건물녹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都의회건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都는 심터를 제공하고, 열섬효과를 완화할 목적으로 都의회 건물 옥상에 770㎡ 규모의 정원을 조성했으며, 청정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원 주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식물성 고착제로 표면을 싼 인공토양을 강풍과 하중을 고려해 한 뼘 두께로 바닥에 깔았으며, 관목과 난쟁이 진달래, 아벨리아, 일본 호랑가시나무, 백합 등 동경대도시권에 서식하는 19종의 풀과 나무를 약 2만 그루 심었다.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방수 및 배수를 위한 패널도 설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약 90㎡ 크기의 태양광 발전용 패널도 설치하였다. 이 발전시스템은 전력 저장기능은 없으나, 최대 12kW 출력으로 옥상정원의 조명과 의회건물 내 전력공급을 담당한다. 옥상정원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는 데 총 4,970만엔(약 5억원)이 소요되었다.

(www.kankyo.metro.tokyo.jp/english/greenproject/index.html)

④ 가을 낙엽 청소하기 (뉴욕)

미국 뉴욕市는 행정조례를 통해 모든 건물주인은 자기 건물 앞의 보도와 차도의 배수로를 항상 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로상에 쌓인 가을 낙엽도 건물주인이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주인이 낙엽을 청소할 때는 별도로 공급되는 쓰레기 봉투에 낙엽을 담아 쓰레기 픽업 장소에 놓아 두어야 한다.

(www.nyc.gov/html/dos/html/pressrel/lpr21021.html)

5 도로이용자 편의 위해 교통사업 정보 제공 (샌디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부는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교통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핫라인 및 인터넷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교통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해당구간 통행시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당국은 직접적으로 교통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On the Move」라는 소식지를 배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교통부는 우선 샌디에고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I-405 구간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인승 차량 전용차로 확장 등 다양한 교통사업이 추진되어 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사업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biz.yahoo.com/bw/021107/70311_1.html)

6 대중교통 이용촉진 위해 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다목적 활용방안 모색 (뉴욕)

미국 뉴욕시의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MTA New York)는 1,2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차권에 복권의 기능을 추가해 당첨자에게는 무료 승차권 또는 스포츠 이벤트 및 공연 티켓 등을 제공하는 복권형 승차권 판매, 둘째, 택시승차, 주차, 그리고 의류 및 식품 구입, 문화이벤트 관람 등 비대중교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 지급도 가능한 다기능 교통카드 개발, 셋째, 교통카드 분실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등이다. MTA는 향후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증진방안 수립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nydailynews.com/news/local/story/29087p-27633c.html)

7 일반버스보다 6m 길고 첨단기능 갖춘 「굴절버스」 도입 (캘리포니아주: San Mateo County)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머테이오(San Mateo) 카운티는 첨단기능을 갖춘 굴절버스(articulated bus)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버스보다 약 6m 가량 긴 이 버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GPS시스템, 첨단통신시스템, 자동 승객 카운팅 기기, 버스정류장 안내방송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영중이며, 2003년 1월 중순까지 이 버스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샌머테이오(San Mateo) 카운티는 이 버스를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역판매세 및 통행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 구입했으며, 단계적으로 기존의 노후차량을 대체할 계획이다.

(www.samtrans.com/news_2002_articulated_buses.html)

8 도심부의 주차공간 가이드북 발간 (캐나다: 런던市)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남동부에 있는 런던市(City of London)는 도심부 교통 혼잡을 피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부에 있는 유·무료 주차장의 위치, 규모, 이용시간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심부 방문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했다. 이 가이드북은 도심부 운행버스의 승강장 위치, 노선, 연결망 등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을 발간한 목적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심부의 교통체증을 피해 짧은 시간에 주차공간을 찾고, 쾌적한 도심부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심 내부를 서행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불필요하게 점유함으로써 유발되는 도심부의 교통체증, 에너지 낭비, 유해가스 배출 등 여러 교통관련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런던 도심부 주차공간 가이드북은 시청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려져 있다. (www.city.london.on.ca/Mapphoto/parking_guide_intro.htm)

9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과의 토론회’ 매주 개최 (캔자스시티)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는 「ServiceFIRST」라고 불리는 토론회를 市長 주재 하에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ServiceFIRST」 토론회 개최의 주요 목적은 市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개선내용을 적시에 보다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다. 이 토론회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市長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市의 부서간 업무협조 활성화와 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열린 「ServiceFIRST」 토론회에는 市長을 포함한 City Manager, 간부직원, 그리고 관심있는 市의원들이 참석해 도로유지관리, 쓰레기 수거, 불법 쓰레기투기, 빗물 및 우수지 관리, 무단 폐기차량 단속, 대형가구 수거 등과 같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기초서비스 분야의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www.kcmo.org/ccco.nsf/4.../cd4ae31eba0fb7bb86256c5d00615e5e?OpenDocumen)

10 지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역서비스 성과지표 제공 (뉴욕)

미국 뉴욕市는 그동안 「市책임성프로그램(Citywide Accountability Program)」을 통해 수시로 시민들에게 市주요부서의 시정서비스 성과지표(목표지표와 성과 달성지표)를 공개해왔다. 최근 市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서비스 성과지표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My Neighborhood Statistics Program」을 운영하기로 했다.

市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지역서비스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14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해 각 지역별로 성과지표지수를 만들고 있다. 주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소나 도로명을 클릭하면 바로 그 지역의 14개 지역서비스 성과지표가 지도 옆에 나타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서비스 수준과 지역 내 공무원의 목표달성 정도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216.35.68.149/gisapp/mmr/address.jsp?app=MMR)

④ **선진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휴스턴)**

미국 휴스턴市는 기술개발을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市기술지도위원회와 최고정보관리자, 市가 공동으로 '311 휴스턴 서비스 헬프라인(3-1-1 Houston Service Helpline)', '심휴스턴(SimHouston)', '전자정부센터(eGovernment Center)' 등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311 휴스턴 서비스 헬프라인'은 연중 무휴의 통합시정정보센터로서, 311번을 누르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온갖 행정서비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콜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심휴스턴'은 지역기업인 Internet Access Technologies사(社)의 협조를 받아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자정부센터' 구축은 휴스턴市長의 5대 역점시책 중 하나인 '지역사회 중심의 市정부' 구현을 위한 것으로, 市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한 전자정부센터에서 각종 행정서비스와 프로그램 신청 등의 서비스를 각 가정에서 연중무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www.ci.houston.tx.us/mayoroffice/techinit.html)

④ **도시의 랜드마크를 전구로 장식한 야간 「빛의 축제」 개최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상수·전력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빛의 축제(2002 DWP Light Festival)」를 개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市는 이 축제를 위해 그리피스 파크 내 1마일 정도의 길을 따라 헐리우드 사인, LA 스카이라인 등 도시의 여러 랜드마크를 전구로 장식, 아름답게 디스플레이해 놓았다. 시민들은 걸거나 차를 타고 이 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축제기간 동안 약 33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매년 개최되는 이 축제는 올해로 7년째로, 11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www.laparks.org/light%20festival/2002_lightfestival.htm)